

'반명 연대' 단일화·결선투표로 빅매치 성사될까

민주 대선 본경선 변수와 관전포인트

'이재명 대 반이재명' 치열해 질 듯
판세 좌우 호남표심 잡기 총력
투표 결과 세차레 나눠 발표
'슈퍼워크' 제도 판세 영향력 주목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양승조·최문순 후보가 탈락, 본 경선은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 후보(기호순)의 '6인 레이스'로 치러지게 됐다.

대선 후보는 9명에서 6명으로 줄었지만 본경선에서도 기존의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구도'는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선투표없이 대선 도전에 나서려는 이재명 후보와, 극적인 역전 드라마 연출을 노리는 후보들의 양보없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셈이다. 특히, 경선 일정 중간에 진행될 예정인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지역 경선은 전체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 4차 대유행, 합중연형, 슈퍼워크 등 각종 변수가 산재되어 있어 본 경선 결과는 결코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선 일정=민주당 지도부는 본경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3차례 나눠 발표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모집하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8월 15일, 8월 29일, 9월 5일 세차례에 걸쳐 발표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도부는 이런 내용의 당 선관위 제안을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11개 권역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본 경선은 대의원대회 일정과 맞물리게 된다. 지역별 본경선은 ▲대전·충남(8월 7일) ▲세종·충북(8월 8일) ▲대구·경북(8월 14일) ▲강원(8월 15일) ▲제주(8월 20일) ▲광주·전남(8월 21일) ▲전북(8월 22일) ▲부산·울산·경남(8월 28일) ▲인천(8월 29일) ▲경기(9월 4일) ▲서울(9월 5일) 순이다. 지역별 대의원·관리당원 투표 결과도 현장에서 각각 발표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동안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진통 끝에 확정된 경선 일정을 다시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무위에서 경선 일정을 조금 뒤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호남 민심= 광주·전남과 전북의 지역별 경선은 8월 21일과 22일 각각 진행된다. 과거에는 광주·전남·전북지역 경선이 초반에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중반에 실시된다. 이는 대전·충남, 세종·충북 등 중원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호남지역 경선이 초반에 실시되면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달 15일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 진행되는 광주·전남과 전북 지역의 경선 결과는 전체적인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호남 지역 대의원과 관리당원들의 표심이 사실상 진보 진영의 심장인 호남 표심을 반영한다고 봐도 크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9일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의 폭우 피해 농장에서 자원봉사 중인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낙연 캠프 제공>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가 11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해남군 현산면 포레스트수목원을 찾아 피해복구에 헌정인 육군 31사단 해남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우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 지역 대의원과 관리당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슈퍼워크=민주당이 세차레에 걸쳐 모집하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8월 15일 △8월 29일 △9월 5일에 발표하는 '슈퍼워크' 제도는 본 경선의 최대 변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초반 '기선 제압'으로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한다면, '밴드왜건 효과'로 2·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탄력을 받아 결선 투표없이 대선 티켓을 거머쥐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보 주자들은 슈퍼워크에서 의미있는 지지율을 확보,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막고 결선투표를 통해 대역전을 펼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서는 1차 슈퍼워크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선거인단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차 선거인단 모집은 지난 10일 이미 60만명을 넘어섰으며 마감일인 11일 밤까지 70만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의 선거인단은 18만~2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합중 연형=본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기 위한 후보 주자들의 합중연형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압도적인 선두주자지만, 과반 득표를 자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2위 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당내 지지세를 30% 안팎으로 높이며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른 후보들도 반이재명 여론을 결집한다면 뒤집기의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반명 연대'의 십자포화가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호남 주자인 이낙연·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여부도 추미애의 관심사다. 두 사람의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판도 변화도 예상된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번 도전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단일화 효과가 판세를 뒤엎을 정도가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결국, 1위와의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는지가 합중연형의 파괴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정세균, 전남 수해현장 찾아 호남표심 잡기

추미애 14·15일 광주·전남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이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호남지역을 방문하는 등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해남 구산천과 포레스트 수목원 등 수해지역을 방문해 피해 규모와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남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도민에 피해가 많다"며 "중앙정부가 전향적으로 피해 복구 역할을 해야 한다. 제가 앞장서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남, 진도 등 수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돼 이재민들이 편안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해당 지

역은 재해 구호와 더불어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정 전 총리의 수해현장 방문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윤재갑(해남·완도·진도), 명현관 해남군수 등이 동행했다. 정 전 총리는 수해현장 점검 이후, 무안군 삼향읍 김대중 광장을 찾아 현화하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인"이라고 소개하며 "최선을 다해 경선에 임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자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해남군 화산면, 진도군 지산면 침수 피해 현장을 잇따라 찾아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수해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해남군과 진도군은 지난 5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1만ha가 넘는 농지 침수피해가 발

생했고 300여가구가 침수돼 6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해남·진도군이 빠른 시일 내 수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자체 역량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와 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오는 14일과 15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다. 추 전 장관은 14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월어머니회와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을 만날 계획이다. 이어 오후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추미애의 것밭' 대담집에 대한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다음날인 15일에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하고, 비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로나 재확산 변수 만난 민주 경선...연기론 다시 고개

당내 일각 일정 재검토 의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을 맞으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경선 연기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기간 동안이라도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란 끝에 확정된 경선 일정이다 시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에서 "(컷오프를 통과한) 최종 6명이 확정되고 나면 방역상황을 다 점검해 어떻게 경선해갈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대변인도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별 순회 경선이 방역 조치 변경 상황에 따

라 새로 검토돼야 하는 것은 맞다"며 "방식을 위주로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본경선 일정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지금은 예를 들어 방역 상황에 따른 순회일정의 온·오프라인 여부,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어느 정도 인원을 허용할지 등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일정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차례 내홍을 불러왔던 '경선 연기론'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선 연기파로 분류됐던 전혜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행여 우리 당의 경선이 방역에 방해가 돼 지탄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코로나 상황에 맞는 경선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선 연기론에 호응했던 대선후보들은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방역이 최우선이라며 재검토를 바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세균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11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비상 상황이며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최소한 여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경선 연기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어렵게 확정된 경선 일정을 이제 와서 변경하는 것은 코미디며 자제"라며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